

12.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요한복음 20장 24- 29절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들에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무엇보다 ‘믿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도마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변화, 사고의 변화, 사는 방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과 의심이 ‘공동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시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것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사이에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의 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공동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실망해서 공동체를 떠나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공동체에 있지 않으므로 믿음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의 믿음은 26절에서 시작됩니다.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는 공동체를 떠나야 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떠나야 하는 이유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가만히 묵상하다가 믿음이 생겼던 경우보다는 공동체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지 않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들에게 오실까요? 성령의 임재가 언제 우리들에게 임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아주 날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르렀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아주 많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것이 언제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밤에 ‘도둑 같이’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와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니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비오는 수요일’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요일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비오는 수요일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에 가장 소속하기 싫은 그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아닐까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옥한음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언제부터인가 ‘부활을 기념’하는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써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말씀의 상황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현장인 무덤에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들렸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부활의 이야기’가 제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부활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신 주님을 유일하게 도마만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함께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을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는 물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하겠구나!

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 하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가지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 분에게는 무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볼 마음이 드네. . .”

이러한 신앙에서는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기복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으니, 기꺼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헌신과 사명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찾아오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기꺼이 참아내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사명주의’에 근거한 자기 절제가 극단적인 수도원 주의와 같은 현실적 삶을 부정하는 극단적 이상주의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단순히 자기부정의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길을 갈 때,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단순히 기복주의 적인 세상의 복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만 지고 참아 내야만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기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십자가를 저서는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믿음도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죽음과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수없이 많은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소문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점점 소문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부활과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한 순교가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영광을 바라보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영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런 삶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

20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인되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서니. . .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하지만 도마와 동일한 상황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슬픔에 싸인 몇몇 여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큰 슬픔과 상실감에 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며 메시아로 고백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며, 그 시신이라도 잘 수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몇몇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수습을 했지만 뭔가 부족했든지, 이들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이로 인해 마리아는 슬픔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때 마리아는 자신에게 묻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제발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말이죠. 그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주 익숙한 음성을 듣습니다.

“마리아야!” 그제야 마리아는 그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격한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열 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유다는 죽었고, 이유는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쁘거나 잔치를 하기 위해 모여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말이죠.

그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던 모습 말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좀 알아 줬으면 하는 마음에 한 꺾 자신들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어, 누구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들의 두려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유와 동일 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니, 제자였던 자신들도 동일한 일을 당할 것 같은 공포심 같은 것 말입니다.

그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 공포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평강이 ‘소명’과 함께 그들에게 찾아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무서워 숨는 곳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역지’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공포’ 그 자체가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간의 공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는 광고들을 보세요.

건강보조식품 광고들을 듣고 있으면, 그 약 안 먹으면 곧 죽을 것 같고,

화장품 광고를 보면 그거 안 바르면 곧 늙어버릴 것 같고,

그 집에서 안 살고, 그 옷을 안 입으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 같다는 감정을 건드리죠.

얼마 전에는 새로운 보험 광고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가정에 ‘화재보험’을 먼저 들라는, 또한 지진과 태풍 피해도 보상해 준다는 광고들 말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고 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는 회사일까요? 결국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 돈을 버는 것이죠.

우리가 귀가 얇아 이런 소리들에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경제의 어려움, 노후에 대한 걱정, 젊은 세대들의 절망감. 이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두려움으로 인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대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평강이 있을 찌어다!” 어떻게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힘든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 그리고 실패와 슬픔이 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현실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이제 도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의 가장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세요.**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가 늘 이야기 하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상상력을 가지고, 또한 감정이입을 통해 말씀을 느껴보라고 말입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평강을 경험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지금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 명이 돌아가면서 흥분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한 것이고, 어떤 이는 주님의 손가락에 난 못 자국을 보고 마음이 아픈 감격을 느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주님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감동도 크겠지요.

“주를 보았소!”라는 한 마디에 참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도마의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그 사실을 자신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소외감’ 같은 것이 찾아왔을 것이고, 더욱 냉소적이 되어서 부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하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 도마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심해 보겠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증거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는 어떤 사람의 말도 믿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 혹은 ‘자기 확신’ 같은 것이, 도마를 믿음 없는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11명의 제자 중에 도마만이 참 불행한 사람이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견고하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은 그 순간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도 ‘문들이 닫혔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닫혀있는 도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의심으로 가득한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하시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 후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600여명의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고,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래전 [뉴스위크]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했던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칼 세이건 (Carl Sagan)은 골수암으로 투병을 하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저명한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 부활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종교지도자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병상에 있을 때 여러 교회에서도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본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यो,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옥한흠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서)

어느 날 칼 세이건은 미국의 큰 기독교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과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중에 그는 그 목사님께 너무나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자 목사님은 그의 말을 받아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계속 대화가 오가는 중에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믿는가?" 그러자 그는 아내를 몹시 사랑하던 사람인지라 사랑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가?" 그는 처음에는 당연히 입증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양심이 있는지라 결국 사랑에는 입증하지 못할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사랑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그는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신앙 역시 입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이다."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은 만사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재어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칼 세이건 박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마의 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28-29절.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때부터 도마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수십 년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의심이 사라져야 확신이 찾아오고,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소명자가 됩니다.